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

2024. 2. 7.

기 획 재 정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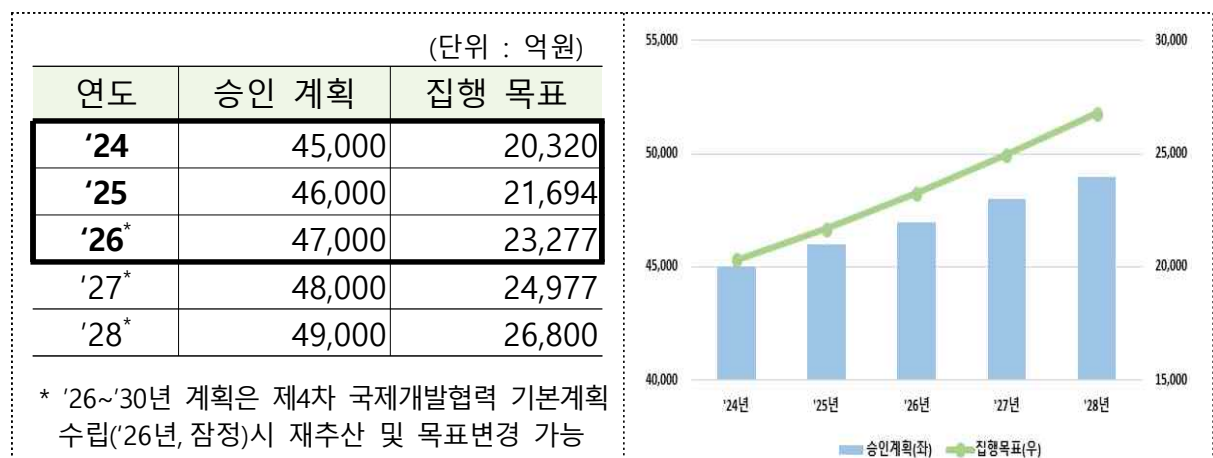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 (요약)

1. 추진배경 및 성과

- **(배경)** 기후변화·국제분쟁 등으로 개발재원 수요가 확대되고, 주요 공여국은 대외전략과 연계하여 ODA를 확대·활용중
 - ⇒ 우리도 국제사회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ODA를 지속 확대 중으로,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
- **(23년 성과)** 역대 최대 승인(3.7조원) 및 집행(1.4조) 실적 달성
 - 우리기업 대형사업 수주지원(방글라 카르나폴리 교량건설 승인, 다카 메트로 4호선 선점) 및 주요 협력국(방, 베, 필)과 F/A 규모 확대

2. 추진전략

- **(운용 규모)** ODA 규모 확대 목표*를 고려하여 **3년간('24~'26) 13.8조원 승인 및 6.5조원 집행** 추진 ('23~'25년 11.7조원/5조원)
 - * ODA 규모를 세계 10위('22년 16위)로 확대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 **(분야별)**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및 디지털 전환 촉진 필요성, 팬데믹 안정세 등을 반영하여 그린·디지털 분야에 자원 집중
 - * 중점분야 승인 규모('24/'26년, 억불): 그린(20/25), 디지털(10/12), 보건(7/8)
- **(지역별)** 우리기업 진출수요가 높은 아시아에 집중하되, 경험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 및 중남미로 점진적 다변화 추진
 - * 지역별 승인 비중('24~'26년, %): 아시아(60~70), 아프리카(20~30), 중남미(10~20)



3. 중점 추진과제

① 전략적 사업 추진

- ① (**양자**) 개도국 분야별 정책과제의 수립·이행을 종합 지원*하고, F/A 확대·체결(총 171억불) 등을 통해 대형 프로젝트 발굴

* 단편적 인프라사업 → '정책컨설팅(KSP 등) + 프로그램차관 + 인프라지원' 종합 제공

- ② (**협조용자**) ^{구속성}교통·ICT 등 우리 기업 기술우위 분야, ^{비구속성}기후변화·보건 등 글로벌 공공재 분야 중심으로 활성화

② 개발환경변화 대응

- ① (**지원모델 다변화**) 정부대상, 대출 중심 → 민간대상*, 보증·지분 투자 등으로 다변화하여 개도국 민간개발 수요에 적극 대응

* PPP 사업, 전대차관(우리 금융기관 현지법인 활용), 개발금융펀드 투자 등

- ② (**비구속성**) '25년까지 비구속성 60%('23년 59%)를 추진하되, 우리 기업 상세설계 참여 확대 등 비구속성사업 수주 노력 병행

③ EDCF 제도개선

- ① (**기간 단축**) 절차 간소화, 요건 명확화 등으로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컨설턴트 현지파견, 완공사업 사후관리 강화 등 품질 제고

- ② (**기업 애로해소**) 외화표시차관 확대, 수원국 과세정보 제공 및 계약 명시 등으로 우리기업 환율 및 세부담 관련 불확실성 완화

- ③ (**외화차관**) 장기 외화차관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외화 계정 신설 및 외화조달체계 개선(스왑 외 외화직매입 혼용)

④ EDCF 성과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

- ① (**정상외교 시너지**) 정상외교와 사전 연계를 강화하여 유망 대형 사업에 대한 추진동력 확보 등 경제협력 성과 극대화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대비, EDCF 대상국 신규 선정 및 F/A 증액·체결 등 준비

- ② (**대내외 협력**) 대국민·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美·日·英 등 공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공동협력사업 적극 발굴

* (美·日) 한·미·일 개발인도지원 정책대화, (英) 한·영 전략적 개발파트너십 등

목 차

I . 추진배경	1
II . 중기 운용전략	4
1. 기본 방향	4
2. 중기 운용 규모	5
3. 중점 분야 및 지역 배분	6
III . 중점 추진과제	7
1. 전략적 사업 추진	7
2. 개발환경변화 대응	8
3. EDCF 제도개선	9
4. EDCF 성과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	10
IV . 향후 추진계획	11

I. 추진 배경

1 대내외 개발협력 환경

- ① **(개발아젠다)** 기후변화, 국제분쟁 등으로 개발재원 수요가 지속 확대되면서 글로벌 공동 대응 및 민간협력 필요성 증대

* 개발재원 부족액이 연간 2.5조달러 → 4조달러로 증가('23.9월, UNCTAD)

- 모든 참여국이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을 추구하고, 재생에너지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합의('23.12월, UN COP28)
- OECD 개발원조위원회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시장경제 발전, 민간부문 투자 등을 강조('23.11월, 고위급회의)

- ② **(대외전략 연계)** 선진 공여국들은 ODA와 대외전략을 연계* 하는 경향이 강화되어, 주요 수원국에서 공여국간 경쟁 심화

* (美) 中 일대일로에 대응, G7 중심 PGII (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Investment) 주도
(日) '인도-태평양전략' 지원을 위한 ODA 전략적 활용('23.6월, ODA 강령 개정)

- ③ **(비구속성 요구)** 개도국의 소득증가로 인니, 베트남, 필리핀 등 EDCF 상위협력국이 구속성 원조국가를 졸업*할 전망

* EDCF 중점지원국 중 구속성 원조 제한국: ('23년) 3개국 → ('27년) 8개국 전망

- OECD 개발원조위원회 등 국제사회 및 수원국에서도 개발원조 사업의 비구속성 비율 확대 지속 요구중

- ④ **(ODA 확대)** 국제사회에 책임·역할을 다하기 위해 우리 ODA 규모를 대폭 확대중*으로,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고도화 필요

* ODA 예산규모(조원) : ('20) 3.5 → ('21) 3.7 → ('22) 3.9 → ('23) 4.5 → ('24) 6.3

- 정상회담과의 시너지 강화, 우리기업·인력 해외진출 지원 등 호혜적 협력 강화 및 가시적 성과 확대 필요

2 2023년 EDCF 운용현황

2-1. 추진 실적

① (지원 규모) 역대 최대 규모 사업 승인 및 집행 실적 달성

- (승인) 전년도 대비 19.6% 증가한 3.7조원(총 14개국 22개 사업) 승인
- (집행) 1.4조원 집행으로 '23년 목표 대비 92.9%의 집행을 달성

< 사업 승인 추이(억원) >



< 사업 집행 추이(억원) >



② (분야별 승인) '23~'25년 EDCF 중기운용방향('23.1월) 상 중점 추진 분야 목표 초과 달성

구 분	'23년 승인목표(억불)	'23년 승인실적(억불)	목표달성률
그린	12.0	26.0	216.3%
디지털	7.0	9.5	135.8%
보건	5.0	4.9	97.8%
합 계	24.0	40.4	168.1%

2-2. 주요 성과

① (협력기반 강화·확대) 주요 수원국과의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경험 잠재력이 높은 신규 협력국 적극 발굴 및 지원기반 마련

- 방글라(7억불→30억불), 베트남(15억불→20억불), 필리핀(10→30억불) 3개국과 EDCF 기본약정 확대·갱신 완료
-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과는 공여협정(A/G)을 신규 체결하고, 르완다와 기본약정 신규 체결(5억불)

② **(우리기업 지원)** 1억불 이상 인프라 사업의 발굴·승인*을 대폭 확대하는 등 우리기업 대형 프로젝트 수주 및 추진에 기여

* 1억불 이상 사업 승인비중(금액기준) : ('21) 57% → ('22) 65% → ('23) 79%

- '다카 메트로 4호선' 사업 발굴 및 선점*, '카르나폴리 교량 건설 사업(7.25억불, 역대 최대)' 승인 등 초대형 사업 발굴·승인

* 「다카 메트로 4호선 사업 협력에 관한 MOU」 체결 (기재부-방 재무부, '23.5월)

- '카이로 메트로 2-3호선 전동차 구매사업(4.6억불, '22년 승인)' 시행 약정 체결을 완료하여 사업의 신속·원활한 추진 도모

③ **(EDCF 고도화)** 테마별 정책·전략 수립, 보증 등 지원방식 다변화, 기후변화 내재화 등을 통한 EDCF의 질적 도약 추진

- EDCF와 연계한 우리기업 해외진출 지원 방안, 보건·의료분야 EDCF 지원 고도화 방안 등 테마별 EDCF 운용전략 수립

- 보증제도 개선 및 ADB 아태기후혁신퍼실리티* 신규가입 결정 등 EDCF 보증 지원 개시를 위한 기반 마련

* 공여국 보증을 통해 최대 5배의 레버리지로 기후사업을 지원하는 ADB 퍼실리티

- 기후변화 대응체계 시범적용 분야 확대* 등 기후역량 강화 지속

* '22년 하수처리, 홍수저감 → '23년 보건, 교육, ICT, 해상교통, 폐기물 등으로 확대

2-3. 향후 과제

- ① 개도국 대규모 개발계획, 대형 랜드마크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양자 진출이 어려운 지역 등은 MDB 협조유자 활성화 필요
- ② 개도국 민간시장 성장, 비구속성 확대 등 개발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 내실화 필요
- ③ 대폭 확대된 EDCF 예산을 면밀히 집행하고, 정상회담과의 시너지 강화 등 가시적 성과를 제고할 필요

Ⅱ. 중기 운용전략

1 기본방향

- ◇ ODA 확대 목표, 경험 잠재력, 우리기업 진출 수요 등을 고려한 중기운용 규모 및 분야별·지역별 자원배분 계획 수립
- ◇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EDCF 지원규모 대폭 확대 및 전략적·효과적 지원 추진



2 중기 운용 규모

◇ ODA 규모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3년간 총 13.8조원 승인, 6.5조원 집행 추진('23~'25년 목표 11.7조원/5조원)

* ODA 규모 세계 10위('22년 16위)로 확대(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 (승인 목표) 집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24년부터 연간 승인 규모*를 대폭 상향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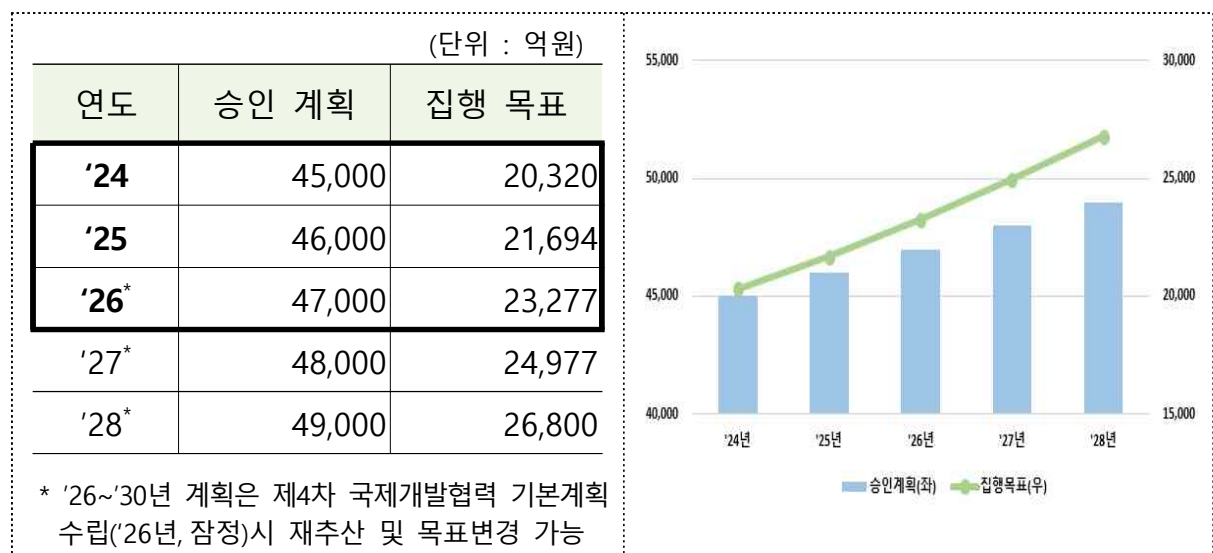
* 승인 후 연차별 평균 집행률을 적용하여 승인 필요 규모를 산출
('11~'21년 평균 집행률 : (~3년) 8.5% / (~5년) 23.4% / (~10년) 64.8%)

○ '24년은 전년목표 대비 0.7조원 증가한 4.5조원을 승인하고, 매년 0.1조원씩 지속 확대하여 향후 3년간 총 13.8조원 승인

□ (집행 목표) ODA 확대 목표(세계10위 공여국 달성)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총 6.5조원의 집행 목표 수립

* '26년까지 ODA 총 규모를 세계 10위 수준(OECD 회원국 기준, '22년)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7.3%씩 증가 필요

○ '24년은 전년대비 35.2% 확대된 2조원을 집행하고, 매년 0.1~0.2조원씩 증액하여 '25년 2.2조원, '26년 2.3조원 집행 추진



3 중점 분야 및 지역 배분(안)

- ◇ 그린 분야는 지원 확대, 디지털·보건 분야는 現 기조 유지
- ◇ 아시아 집중(60~70%), 아프리카 확대(20~30%), 중남미 다변화(10~20%)

- **(중점 분야)** 최근 3년 지원 추이*, 수원국 개발수요 등을 고려해 그린 분야 지원 대폭 확대, 디지털·보건 분야 현행 기조 유지

* '21~'23년 실적 평균(억불) : (그린) 18.1, (디지털) 10.7, (보건) 5.8

	기존 목표(승인 기준)	신규 목표(승인 기준)
그린	('24) 14억불 ('25) 17억불	('24) 20억불 ('25) 22억불 ('26) 25억불
디지털	('24) 8억불 ('25) 9억불	('24) 10억불 ('25) 11억불 ('26) 12억불
보건	('24) 7억불 ('25) 7억불	('24) 7억불 ('25) 8억불 ('26) 8억불

- **(그린)** '23년 목표를 상회하는 실적,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수요 등을 감안하여 목표 대폭 상향 ⇨ ('24년) 20억불, ('26년) 25억불
- **(디지털)** 수원국 디지털 전환 촉진, 우리기업의 ICT 경쟁력 등을 고려해 확대 기조 유지 ⇨ ('24년) 10억불, ('26년) 12억불
- **(보건)** 팬데믹 안정화, 개도국의 지속적인 보건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규모 유지 ⇨ ('24년) 7억불, ('26년) 8억불

- **(지역)** 우리기업 진출 수요가 높은 아시아에 집중하고, 아프리카, 중남미로 점진적 다변화 추진(기존 비중* 유지)

* '23-'25년 승인목표 비중(%): 아시아(60~70%), 아프리카(20~30%), 중남미(10~20)

- **(아시아)** 인태전략 등 대외정책과의 연계, 대규모 인프라 수요, 우리기업 해외진출 등을 감안해 아시아 집중(60~70%) 유지

* 아세안, 서남아는 인도-태평양 전략 최우선 협력 지역

- **(아프리카)**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등 정상외교와의 시너지, 높은 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 아프리카 지원규모 확대(20~30%)
- **(중남미)** 우리기업 중남미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비중을 유지하되, MDB 협조융자 外 양자 사업도 적극 추진(10~20%)

Ⅲ. 중점 추진과제

1 전략적 사업 추진

- ① **(종합 파트너십)** 단편적 인프라 사업을 넘어서, 분야별·주제별 정책과제 수립부터 유관 인프라 구축까지 종합 지원

- ‘정책컨설팅 + 프로그램차관 + 인프라지원’을 패키지로 제공

【예시 : 컨설팅 + 프로그램차관(정책개선) + 인프라지원 패키지】

분야	①정책컨설팅(KSP 등)	②프로그램차관	③인프라지원
기후 변화	인니 녹색산업단지 개발전략 KSP	녹색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	녹색산업단지 + 주변 인프라
교통 개선	방글라 다카 교통인프라 개선 M/P	교통인프라 개발계획 수립 및 이행지원	메트로 + 주변 인프라

- 무상기관과의 협업을 확대·강화*하여 사업의 준비 및 시행, 사후관리까지 쉼 주기를 종합적으로 지원

* EDCF 범부처심의회 기능 강화(위원장 국제경제관리관으로 격상), 유·무상 공동 F/S 수행, 완공 전·후 사후관리 관련 무상사업 연계 확대 등

- ② **(사업 대형화)** 개도국 인프라 사업의 대형화 추세, 향후 안정적 집행관리 등을 고려하여 대형 랜드마크 사업에 주력

- 우리기업 관심 대형 인프라 사업의 발굴·지원이 용이하도록 주요국과 EDCF 기본약정(F/A) 증액·체결(총 171억불 ☞ 참고)

* 인도(40억불, 신규), 방글라(30→50억불), 이집트(10→30억불), 탄자니아(10→20억불) 등

- 수원국과 既협의중인 유망 대형사업*은 협의단계에서 MOU를 체결하는 등 선점, EDCF·EDPF 복합금융으로 지원규모 확대

* 베트남 호치민 메트로 2-2호선(10억불), 방글라 다카 메트로 4호선(15억불) 및 5호선(10억불), 필리핀 해상교량(10억불), 엘살바도르 아카후틀라 항만(2.3억불) 등

- ③ **(협조용자 활성화)** ^{구속성}교통·ICT 등 우리 기업 기술우위 분야, ^{비구속성}기후변화·보건 등 글로벌 공공재 분야 중심으로 확대

- 특히 양자로 진출이 어려운 아프리카, 중남미, 인도 지역* 등은 협조용자 규모를 확대하고, 비구속성 사업도 적극 발굴 및 지원

* ADB 협조용자 한도를 증액(7→15억불 이상)하여 인도사업 등 적극 지원 추진

2 개발환경변화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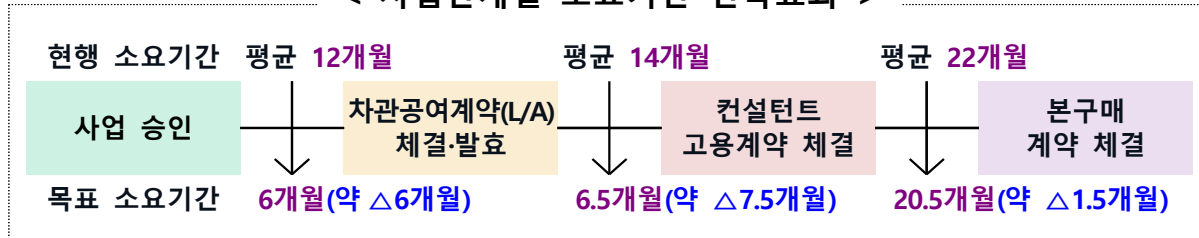
- ① **(지원모델 다변화)** 정부대상, 대출 중심에서 민간, 보증·지분투자 등으로 지원을 다변화하여 개도국 민간개발 수요에 적극 대응
- **(PPP)** EDCF 주도 PPP F/S 공모 포함 개도국 내 PPP 사업을 다각도로 발굴하고, 사업화 비용 등을 지원
 - **(전대차관)** 국내 금융기관이 출자한 개도국 현지 금융기관 등을 활용하여 개발효과성이 높은* 개도국 민간부문 금융 지원
 - * 기후변화, 양성평등, 미소금융, 보건 분야 개도국 현지 기업 등
 - **(채무보증)** 'ADB 아태기후혁신금융퍼실리티(IF-CAP)*'에 참여하여 EDCF 최초로 채무보증 지원방식 도입 및 지원 개시
 - * Innovative Finance Facility for Climate in Asia and the Pacific : 공여국 보증을 통해 최대 5배의 레버리지로 기후사업을 지원하는 ADB 퍼실리티
 - **(MDB·DFI 협업)** MDB 퍼실리티 지원범위 확대(민간차주 포함), 개발금융기관(DFI)·MDB와 개발금융펀드 공동 투자 등 검토
- ② **(비구속성)** '25년까지 비구속성 60% 목표('23년 59%, 잠정) 지속 추진
- 주요 협력국의 비구속성 전환을 대비, 우리기업 상세설계 참여, 양자 프로그램차관 연계* 등 비구속성사업 수주 기반 마련
 - * (예시) 인니 녹색기술 혁신성장 프로그램차관(EDCF 1억불, '24년 승인 추진) 통한 정책기반 및 시범사업 발굴 → EDCF 녹색혁신 인프라 사업 지원 연계
 - 수주 실익이 낮은 사업(지방도로 등)은 비구속성을 허용하여 고부가사업(경전철·메트로) 구축성 추진을 뒷받침
 - 기후변화 대응, 보건 등 글로벌 공공재 분야는 비구속성 지원 (협조융자, 프로그램차관)도 확대하여 국제사회에 책임·역할 강화
- ③ **(프로그램차관 내실화)** 前KSP 등 우리 정책자문, 後구속성 인프라 등 전후방 연계 가능한 양자 프로그램차관 적극 발굴 및 지원
- 다자(MDB) 프로그램차관은 그린·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개선에 집중 지원하여 녹색사다리 역할 강화 등 국격 제고 기여

3 EDCF 제도개선

- ① **(소요시간 단축)** 절차 간소화, 요건 명확화* 등을 통해 사업승인 ~ 본구매 계약 체결까지 소요 기간을 現 4년 → 2년 9개월로 축소

* (예시) 수원국 법률의견서 요건 완화(법무부 외 유관부처 의견서도 허용), 구매 계약변경 사전동의 요건 완화, 「EDCF 구매 가이드북」 배포 등

< 사업단계별 소요기간 단축효과 >



- 동시에 수원국 쏘단계 밀착지원을 위한 사업관리컨설턴트 현지 파견, 완공사업 사후관리 강화* 등 EDCF 사업의 품질 제고

* 완공사업 현황점검 절차 신설(완공 후 7년 이내, 2회), 사후관리 지원제도 개선(수원국 수요조사 확대, 수행업체 직접계약 허용 등)

- ② **(기업 애로완화)** 우리 기업이 반복 제기하는 애로사항인 환율 변동 리스크, 물가상승 위험, 수원국 세금 부담을 적극 해소

현 행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속성 차관은 원화표시 차관 원칙으로 기업이 환리스크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화금고 신설을 통해 현지화 비중 80% 이상 사업 외화표시 차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한적인 예비비 규모로 인해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부족 빈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당성조사(F/S) 작성 지침 개정을 통해 현실적인 예비비 규모 반영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국마다 EDCF 사업 세금처리 원칙이 상이하여 세부담 리스크 大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국 과세정보 분석 제공 및 차관계약·입찰서류 규정 명확화

- ③ **(외화차관 개선)** 외화계정을 신설*하여 외화 회수 원리금을 신규 외화차관 집행에 활용, 환전비용 절감 및 행정 효율화 도모

* 시중은행에 외화계정을 신설 가능하도록 EDCF 시행령 개정 완료('23.6월)

- 외화 조달시 현행 스왑계약 방식과 더불어 외화 직매입을 혼용하여 차환 리스크 완화, 거래수수료 절감 등 추진

* 외화차관 만기(12~40년) 대비 스왑만기(3년 이하)가 짧아 잦은 갱신 필요 및 외화유동성 검색시 갱신이 원활하지 않을 우려

4 EDCF 성과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

- ① **(대외전략 연계)** 정상외교와 사전 연계를 강화하여 우리기업 관심 대형사업에 대한 추진동력 확보 등 경제협력 성과 극대화
 - **(정상외교)** 정상순방 또는 정상회의 대상국에 대하여 경제 중요도를 감안하여 개발협력 패키지 마련
 -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대비, EDCF 대상국 신규 선정 및 F/A 증액·체결 등 준비
 - **(공급망)** 공급망 구축 관련 인프라(도로, 교량) 개발, 공급망 핵심국가에 대한 EDCF 협력 확대 등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
- ② **(집행관리)** 예산을 면밀히 집행하기 위한 대내외 점검체계 강화
 - **(수원국)** 주요 수원국과 공동이행계획*(Joint Action Plan)을 수립하고, 현지 사무소 중심으로 주기적 이행점검 및 집행 독려
 - * 수원국과 연초에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및 조치사항 등을 합의
 - **(내부관리)** 분기별로 집행점검회의를 개최, 주요사업 중심으로 1분기부터 집행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 강구
- ③ **(소통강화)** 대국민·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가시적 성과 제고
 - **(대국민)** 수원국 실제 개발효과를 중심으로 우리 및 수원국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EDCF 서포터즈* 등 청년 참여를 확대
 - * '24년 EDCF 대학(원)생 서포터즈 30명 선발 추진(상·하반기 각 15명 내외)
 - **(기업)** EDCF 기업간담회를 분기별 정기 개최, 우리기업 관심 지역·분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향후 전략에 반영
- ④ **(공여국 협력)** 선진 공여국과의 개발협력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 및 확대하여 사업발굴 방식 다변화 및 국제사회 논의 주도
 - **(英)**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EDCF-英국제 투자공사(BII) 간 공동협력사업 발굴 등 신규 협력 추진
 - * 정상순방 계기 英외교개발부-韓기재부-韓외교부 간 체결('23.11월)
 - **(美·日)** 신설된 한미일 개발인도지원 정책대화*('23.11월)를 활용한 3국 간 정보 공유, 글로벌 아젠다 공동 대응 등 협력 강화
 - *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23.8월) 후속조치, 격년 개최 합의

IV. 향후 추진계획

①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의결('24.2월)

- 주요 수원국 대상 정책협의 등을 통해 정보 공유 및 사업 발굴
-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 보도자료를 통해 대외 홍보

② 세부과제별 추진현황 월별 점검

구 분	추진전략	일정
전략적 사업 추진	주요 수원국앞 종합 파트너십 제안 및 대형 랜드마크 사업 발굴 (EDCF 정책협의)	'24.上
	F/A 확대 및 신규 협력국 발굴	연중
	협조유자 활성화	연중
개발환경변화 대응	PPP, 전대차관 등 민간지원 사업 발굴	'24.上
	MDB·DFI와 개발금융펀드 공동투자 검토	'24.下
	ADB 아태기후혁신금융퍼실리티 참여 및 보증개시	'24.上
	양자 프로그램차관 확대	연중
EDCF 제도개선	운용관리 규정 및 업무세칙 개정	즉시
	EDCF 구매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24.下
	사업관리컨설턴트 현지 파견(우즈벡, 캄보디아)	'24.下
	타당성조사(F/S) 작성지침 개정	'24.上
	외화금고 운영개시 및 외화 직매입	'24.上
성과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	정상회담 연계 개발협력 패키지 마련	연중
	EDCF 집행점검회의 개최	매분기
	EDCF 기업간담회 개최	매분기

참 고

EDCF 기본약정(F/A) 증액 · 체결 추진계획

- F/A는 정부 간 중기 지원한도·기간을 설정하는 포괄적 약정, 그 범위 내에서는 개별 사업 승인에 대한 약정(A/R) 체결 생략
 - 승인 절차 간소화, 양국 간 중기 협력의사 확인, 수원국 내 유망한 중기후보사업 확보 등 순기능 보유

지 역	국 가	F/A 기간	F/A 한도	확대 수요
아시아	방글라데시	'23~'27년	30억불	50억불
	베트남	'24~'30년	20억불	현행 유지
	미얀마	'18~'22년	10억불	만료(현행 유지)
	몽골	'17~'20년	7억불	만료(현행 유지)
	인도네시아	'22~'26년	15억불	현행 유지*
	파키스탄	'22~'26년	10억불	현행 유지
	필리핀	'22~'26년	30억불	현행 유지
	캄보디아	'22~'26년	15억불	30억불
	라오스	'20~'23년	5억불	현행 유지
	스리랑카	'20~'22년	5억불	만료(현행 유지)
CIS	우즈베키스탄	'21~'23년	10억불	20억불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19~'20년	3억불	만료(현행 유지)
	가나	'20~'24년	10억불	현행 유지
	세네갈	'21~'24년	5억불	현행 유지
	이집트	'22~'26년	10억불	30억불
	케냐	'22~'26년	10억불	20억불
	탄자니아	'21~'25년	10억불	20억불
	르완다	'22~'26년	5억불	10억불
'24년 신규 체결 추진	인도	-	-	40억불
	코트디부아르	-	-	10억불
	볼리비아	-	-	10억불
	우크라이나	-	-	21억불

* '24.7월 WB의 소득그룹 분류에 따른 비구속 전환여부 확인 후 증액 검토 예정